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ASY 세계사 모의고사 1회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⑤	5	④
6	⑤	7	①	8	②	9	③	10	④
11	①	12	④	13	③	14	②	15	⑤
16	③	17	⑤	18	④	19	①	20	②

※ 정답과 해설 참고사항

1. 난이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쉬운 연표

★★★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어려운 연표

2. 자료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 : 핵심 KEYWORD! 반드시 알아야 함!

⇒ 모르는/헛갈리는 정보라면 반드시 복습할 것!

파란색 : 자료 분석에 도움을 주는 세부 정보

⇒ 가볍게 복습할 것!(꼭 암기할 필요는 X)

노란색 배경 : 자료 분석에서의 결정적 단서

3. EBS 연계교재 또는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문제 풀이에 동원되는 내용은 회색&기울임체로 표시했습니다. 암기 대상이 아니므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 일부 문제는 하단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5. 용어의 표기는 EBS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의 표기를 따랐습니다.

★ 예상 등급컷 ★

1등급 : 42점 / 2등급 : 35점 / 3등급 : 30점

★ 예상 오답률 TOP5 ★

1등 : 7번 - 로마 법제사 관련 연표 문제

2등 : 11번 - 영국 시민 혁명 관련 연표 문제

3등 : 14번 - 제국주의 관련 국가 문제

4등 : 20번 - 제1차 세계 대전 관련 연표 문제

5등 : 13번 - 독일 제국 관련 인물 문제

1.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 비상교과서 자료연계 ※

정인(真人)은 거북의 배딱지나 소의 어깨뼈에 구멍을 뚫고 불을 놓아 생긴 균열을 보고 점을 쳤고, 점괘가 어떠했는지를 뼈 위에 기록하였다. 이때 사용된 문자는 **거북의 배딱지를 나타내는 갑(甲)자와 짐승의 어깨뼈를 나타내는 골(骨)자를 합하여 갑골문이라고 불렀다.**

거북의 배딱지를 나타내는 갑(甲)자와 짐승의 어깨뼈를 나타내는 골(骨)자를 합하여 갑골문이라고 불렀다.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문명은 **중국 문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거북의 배딱지를 나타내는 갑(甲)자와 짐승의 어깨뼈를 나타내는 골(骨)자를 합하여 갑골문이라고 불렀다.**

: 중국 문명의 상 왕조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전쟁, 날씨, 사냥, 질병, 제사, 수확 등)을 처리할 때 점을 쳤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데에 갑골문을 사용하였습니다.(정인(真人, 복인(卜人)이라고도 함)은 중국 문명의 상 왕조에서 점을 치고 신의 뜻을 해석하는 점술사를 의미합니다.)

정답인 이유 |

② 중국 문명의 상 왕조에서는 태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① 헤브라이인은 유일신(야훼)를 숭배하는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③ 페니키아인은 지중해 등지에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습니다.

④ 인더스 문명의 드라비다인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⑤ 이집트 문명에서는 10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샤가 이끄는 제국의 대군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스키타이의 본거지인 트라키아로 들어갔다. 그러나 스키타이인들은 제국의 대군과 직접 대결을 피하며 계속 초원 깊숙히 들어갔고 샤는 그들의 종적을 좇아 초원을 헤매야만 했다. ...**(중략)**... 샤의 대군을 물리친 사건이 스키타이의 명성을 크게 높여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스키타이는 외적인 위협이 사라진 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그리스의 폴리스들**과 활발한 교역을 통해 경제적인 번영까지 누릴 수 있었다.

‘샤’, ‘그리스의 폴리스들’ 등을 통해 밑줄 친 ‘제국’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스키타이는 기원전 8세기~기원전 2세기에 아시아 북서부에 존속했던 유목민족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근거 1 | 샤

: 샤는 페르시아 계열 국가의 군주 칭호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제국'이 페르시아 계열 국가(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 등)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근거 2 | 그리스의 폴리스들

: '제국'의 공격을 물리친 스키타이가 그리스의 폴리스들과 교역하며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제국'은 그리스의 폴리스들과 비슷한 시기에 존속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기원전 10세기경 형성되어, 기원전 4세기경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제국'은 기원전 6세기경 형성되어, 기원전 4세기경 멸망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샤는 다리우스 1세이며, 다리우스 1세의 스키타이 원정은 기원전 514년~512년경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인 이유 |

③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마니교를 탄압하였습니다.
- ② 아시리아는 수도인 니네베에 도서관을 설립하였습니다.
- ④ 파르티아는 한과 로마를 잇는 중계 무역을 전개하였습니다.
- ⑤ 사파비 왕조는 아바스 1세 때 이스파한으로 천도하였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2번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 묻는 문제이지만 그리스에 대한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였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와 같이, 최근 평가원 세계사 시험에서 동시기에 존재한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해결할 때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동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관련 기출 문제※ - 동시기에 존재한 여러 국가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번
(비잔티움 제국-사산 왕조 페르시아)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굽타 왕조-사산 왕조 페르시아)

더불어 최근 서아시아사,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아시아사와 관련된 소재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 - 페르시아 관련 고난도 문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3. ①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진(秦) 효공은 위(魏)에서 망명해 온 상앙을 등용하여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상앙은 31개의 현을 설치하고 각 현의 토지에 경계를 표시한 후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한편, 세제(稅制)를 정비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이러한 상앙의 개혁은 진(秦)이 칭왕(稱王)하여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진(秦)', '위(魏)', '상앙', '31개의 현을 설치', '칭왕(稱王)', '패권국으로 성장' 등을 통해 밑줄 친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진(秦), 위(魏)

: 진(秦), 위(魏)는 전국 시대에 존속했던 전국 7웅 국가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임을 추론할 수 있지만, 진(秦)이 위(魏) 등의 6국을 정복한 후라고 추론할 수도 있기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상앙

: 상앙은 전국 시대에 활동하였던 법가 사상가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앙의 활동 시기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면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근거 3 | 31개의 현을 설치

: 밑줄 친 '개혁' 과정에서 31개의 현이 설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개혁' 과정에서 군현제가 실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군현제는 춘추 전국 시대의 일부 국가, 진(秦)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역시 밑줄 친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확정할 수 없는 근거이기에, 다른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4 | 칭왕(稱王), 패권국으로 성장

: 칭왕(稱王)은 군주의 칭호로 '왕(王)'을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즉, 밑줄 친 '개혁' 이후 진(秦)이 군주를 '왕(王)'이라 칭하게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秦)이 칭왕(稱王)하여 패권국으로 성장'한 시기는 진(秦)이 '항제'를 칭하기 전, 즉 진(秦)이 6국을 정복하여 통일을 완수하기 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춘추 전국 시대에는 포전(布錢), 도전(刀錢) 등과 같은 화폐가 유통되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진의 시황제는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였습니다.
- ③ 위진남북조(동진) 시대에 활동한 고개지는 「여사잠도」를 그렸습니다.
- ④ 한 무제 대의 사마천은 『사기』를 저술하였습니다.
- ⑤ 신의 왕망은 노비 매매 금지 등의 급진적 개혁 정책을 시행하였고, 호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4. ⑤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가) 대업 원년에 황하 남쪽의 여러 군에서 남녀 백여 만 명을 징발하여 **통제거**를 만들었다. 낙양 서쪽 황제의 정원에서부터 곡수·낙수(낙양 서쪽의 황하 지류)를 끌어들이 황하에 이르게 하고, 또 한편 황하를 끌어 들여서 회수(현재의 화이하 강)와 바다로 통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천하의 물자 운송이 편리해졌다. …(중략)… 성인 남자만으로는 모자라서 부인들까지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나) 천보 15년 **안녹산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던 현종 일행이 수도 장안의 서쪽에 있던 마외역에 이르렀을 때, 장수와 병사들이 굶주리고 피로하여 모두 분노하였다. 친위군의 장수이던 진현례는 이 난리가 당시 실권자 양국충의 탓이라고 여겨 그를 죽이려 하였다. …(중략)… 양국충이 마외역의 서문 안으로 달아났으나, 군사들이 뒤쫓아 가서 죽였다.

'통제거' 등을 통해 (가)는 **수 양제**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 양제의 재위 시기는 **7세기 초**이며, 자료의 통제거는 **7세기 초(605년)**에 건설되었습니다.

근거 | **통제거**

: 수 양제는 통제거, 영제거 등의 대운하를 건설하였습니다.

'안녹산의 반란' 등을 통해 (나)는 **안사의 난**과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사의 난은 **8세기 중엽(755~763)**에 일어났으며, **자료의 사건(양국충 처형)은 756년의 일입니다.**

: 안녹산은 안사의 난을 주도한 절도사입니다. 안사의 난은 '안' 녹산과 '사'사명이 주도하였기에 안사의 난이라 불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 사이 시기는 **605년~756년, 즉 수 양제 재위 시기와 안사의 난 사이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726년에 **성상 파괴령(성상 숭배 금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클로비스는 5세기 말(481)에 프랑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 ② 과거제는 수 양제의 아버지인 수 문제가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587)
- ③ 굽타 왕조는 6세기 중엽(550)에 멸망하였습니다.
- ④ 양세법은 안사의 난이 진압된 이후인 780년부터 장거정이 일조편법을 실시하는 16세기 말(1581)까지 시행되었습니다.

★ 중국의 세금 제도 ★

왕조	세금 제도
당	조·용·조
송, 원	양세법
명	일조편법
청	지정은제

5.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유럽 방면으로 영향력을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이/가 눈독들이던 발칸반도 지역까지 점령하자 (가)와/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미 (가)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나)**은/는 어떻게든 (가)와/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자국이 전쟁에 다시 휘말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더불어 (나)은/는 러시아와 (가)이/가 동유럽 방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에 (나)은/는 러시아와 (가)이/가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으로 폴란드를 선택하였다. 곧바로 (가), (나)와/과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폴란드 분할** 조약에 서명하였고, 폴란드는 빼앗긴 지역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나), 폴란드 분할'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오스트리아**, (나) 국가는 **프로이센**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므로 문제를 풀 때 (가), (나) 국가를 정확히 확정할 필요는 없었으나, (가), (나) 국가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1 | **폴란드 분할**

: (가), (나) 국가가 러시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나)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또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 (나) 국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2 | **'(가)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나)'**

: (가)와 (나)가 (가)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오스트리아, (나) 국가는 프로이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대프랑스 동맹**에 참여하여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대립한 전쟁입니다. 7년 전쟁 당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 ② 프랑스와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두고 분쟁하였습니다.
- ③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결성한 북독일 연방에서 오스트리아는 제외되었습니다.
- ⑤ 프랑스는 이탈리아 통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역 등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사르데냐 왕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프로이센은 이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였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 출제자의 COMMENT ★

난이도를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로 책정하였지만, 5번 문제가 (가), (나) 국가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가) 국가와 (나) 국가 각각에 대해 묻는 문제였다면, 난이도를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로 책정하였을 것입니다. (가) 국가와 (나) 국가 각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나)’라는 정보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5번 문제와 같이, 최근 평가원 세계사 시험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지문에 꼼꼼 숨겨두는, 일명 ‘자료 분석 끝판왕’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료의 토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앞으로의 세계사 영역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 기출 문제※ - ‘자료 분석 끝판왕’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번
 (‘론 강가의 기괴한 성채’, ‘하루바빠 로마로 돌아가시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왕정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

더불어, 최근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처럼 같은 지역 내의 국가 간 관계를 물을 수도 있지만,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처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 간 관계**를 물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2번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COMMENT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기출 문제※ -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번
 (오스트리아-프랑스, 서유럽)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오스만 제국-러시아, 서아시아-동유럽)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VS 7년 전쟁 ★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1748)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의 여왕으로 즉위한 것을 프로이센이 문제 삼으며 발발하였습니다. 프로이센은 ‘여왕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라는 왕위 계승 법칙(‘살리카법’이라고도 합니다.)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슐레지엔 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보,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견제하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불만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전쟁에서는 프로이센이 승리하여 슐레지엔 지역의 지배권이 프로이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 지역을 되찾고자 하였고, 둘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다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선제공격하면서 7년 전쟁(1756~1763)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프로이센이 승리하며,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모두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출제 요소이므로 각 전쟁을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관계	오스트리아 ④ 영국 VS 프로이센 ④ 프랑스 ⑤	오스트리아 ④ 프랑스 VS 프로이센 ④ 영국 ⑤

※ ④ : 동맹(Alliance), ⑤ : 승리(Victory)

6. ⑤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 (가)의 군대가 재차 수도 카이펑을 공략해 왔다. 이에 북방 영토를 할양하는 대신 (가)와/과 화약을 맺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중략)… 진과정이 나서 “황제를 근심케 하는 것은 신하된 자의 수치입니다. 원컨대 신이 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니, 흥종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진과정을 (가)(으)로 보내지 아니하였다. …(중략)… 카이펑이 함락된 이후 진과정은 (가)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휘종과 흥종 두 황제가 포로로 잡혀** 북방으로 끌려갈 당시, 진과정은 이미 북방에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곳에 억류된 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 인종 경력 4년, **이원호**가 **칭신(稱臣)할 것을 약속하고 송에 조공을 바쳤다.** 이에 (나)에 보내는 칙서를 조서라고 고쳐 칭하면서 (나)(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나) 스스로 관속을 두는 것은 윤택하였다. 또 (나)의 사신이 송의 수도에 도착하면 관역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궁전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수도 카이펑을 공략’, ‘휘종과 흥종 두 황제가 포로로 잡혀’ 등을 통해 (가) 왕조는 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수도 카이펑을 공략**

: (가) 왕조가 공격하는 국가의 수도가 카이펑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왕조가 공격하는 국가가 송임을 추론할 수 있고, (가) 왕조는 송 대에 존재한 여러 북방 민족 국가, 즉 요(거란), 서하, 금, 원(몽골) 중 하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휘종과 흥종 두 황제가 포로로 잡혀**

: 송의 황제(휘종, 흥종)가 포로로 잡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가 정강의 변과 관련된 자료임을 추론할 수 있고, (가) 왕조는 금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원호**, **칭신(稱臣)할 것을 약속하고 송에 조공을 바쳤다.**’ 등을 통해 (나) 왕조는 서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이원호**

: 이원호는 서하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왕조가 서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원호와 관련된 정보는 동아시아사 과목에서에 비해 세계사 과목에서는 잘 다루지지 않으므로 다른 근거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칭신(稱臣)할 것을 약속하고 송에 조공을 바쳤다.**

: (나) 왕조가 송과 군신 관계를 맺는데, (나) 왕조가 신하를 칭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송이 군(君)의 위치에, (나) 왕조가 신(臣)의 위치에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송은 서하,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지만, 금과 군신 관계를 맺을 때는 송이 신(臣)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왕조는 서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정답인 이유 |

⑤ 금은 1234년에, 서하는 1227년에 몽골(오고타이(우구데이) 칸)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서하는 탕구트족이 건국하였습니다.
- ② 금은 화북 지역은 장악하였지만, 중국 전역을 장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원의 쿠빌라이 칸은 남송을 멸망시키며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습니다.
- ③ 요(거란)는 송과 전연의 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연의 맹을 통해 요(거란)와 송은 형제 관계를 맺었고, 송은 요(거란)에게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 ④ 금은 맹안 모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은 여진족은 맹안 모극제로, 한족은 주현제로 통치하는 이원적 통치 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7. ①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가) 콘술(집정관)을 부활시킨다. **콘술 중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미 지불한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잔액을 3년 균등 분할 납부한다.

(나)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라로 정한다.** 이밖에 아들의 명의로 한 명당 250유게라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0유게라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 수도 600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1,000유게라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콘술 중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등을 통해 (가) 법령은 리키니우스법을 알 수 있습니다. 리키니우스법은 **기원전 4세기경(기원전 36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근거 | **콘술 중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리키니우스법은 2명의 콘술(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할 것을 명시한 법률입니다.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라로 정한다.’, ‘1,000유게라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등을 통해 (나) 법령은 그라쿠스 형제(중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제정한 **농지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기원전 2세기경(기원전 13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근거 |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라로 정한다.’, ‘1,000유게라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농지법은 유력자의 대토지 점유를 제한하고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한편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곡물법(기원전 123년, 빈민들에게 값싼 곡물 제공)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기원전 3세기경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기원전 5세기경(기원전 494년) 호민관직이 설치되었습니다.
- ③ 기원전 1세기경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에 의해 제1차 삼두 정치가 전개되었습니다.
- ④ 기원전 6세기경(기원전 509년) 로마 왕정이 붕괴되면서 로마 공화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⑤ 기원전 1세기경(기원전 73년) 검투 노예인 스파르타쿠스가 봉기하며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리키니우스법과 농지법의 제정 연도는 매우 지엽적인 정보입니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둘의 제정 연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의 제정 연도를 몰랐더라도 문제를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 쇠퇴 과정을 바탕으로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도 초기에는 왕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경(기원전 509년)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면서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④ 이후 기원전 5세기경 호민관직(기원전 494년, ②)과 평민회(기원전 471년)가 설치되었고, 12표법, 리키니우스법(가), 호르텐시우스법이 차례로 제정되며 평민권이 성장하였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평민권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급속한 팽창을 시작하였고,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고 ①,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에니 전쟁 이후 대농장(라티퐁디움) 경영이 확산되며 자영농이 몰락하였습니다. 이에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통해 대농장 경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고(나), 로마 공화정은 권력 투쟁과 스파르타쿠스의 난(⑤) 등의 노예 반란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차 삼두 정치(③), 제2차 삼두 정치가 전개되었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며 로마 공화정이 붕괴되고 로마 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와 선지가 ④ → ② → (가) → ① → (나) → ⑤ → ③의 순서로 정렬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와 같이, 연도 암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연표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해 완벽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도 연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도 암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완벽한 개념 학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기출 문제※

- 관련 정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고난도 연표 문제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독일의 팽창 과정)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번 (프랑스 혁명 과정)

사회탐구 영역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 ★

들에서 풀을 뜯는 짐승조차 쉴 곳이 있는데, 로마를 위해 싸우고 죽는 병사들은 공기와 햇빛 말고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집도 안식처도 없이 처자식과 함께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군들이 전투에 앞서 적으로부터 무덤과 신전을 지키라고 군사들을 격려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로마인들 가운데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제단이 있고 조상의 분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깐요. 남들의 부와 사치를 지켜주려고 싸우다 죽는 꼴이지요.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부를 흠 한 덩이도 없습니다!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대농장(라티퐁디움) 경영의 확산으로 인한 로마 사회의 모순에 대해 비판한 연설입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8. ②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일본의 주산고(注三后)인 제가 **대명 황제 폐하**께 국서를 올립니다. …(중략)… 저는 국정을 맡아 **남조를 멸하고** 국내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에 친교를 맺고자 토산물로 금 천 량, 말 10필, 고급 종이 천 첩, 부채 백 자루, 병풍 3쌍, 갑옷 1벌, 몸통 보호용 갑옷 1벌, 검 1자루, 도 1자루, 벼루상자 1합, 작은 책상 1개를 헌상합니다. 또 일본에 표류해 온 자들 몇 명을 찾아내어 돌려보냅니다. 실로 황공하며 머리를 조아려 삼가 아뢰옵니다.

'대명 황제 폐하', **남조를 멸하고** 등을 통해 다음 국서를 작성한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대명 황제 폐하**

: 국서를 받는 대상이 '대명 황제 폐하'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국서를 작성한 막부는 명이 존속한 시기(1368년~1644년)에 존속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국서를 작성한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1336년~1573년) 또는 에도 막부(1603년~1867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남조를 멸하고**

: 다음 국서를 작성한 막부가 남조를 멸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국서를 작성한 막부는 남북조시대를 통일한 무로마치 막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 국서를 작성한 인물은 남북조시대를 통일한 아시카가 요시미쓰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 ㄱ.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킨 후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하였습니다.
- ㄴ. 무로마치 막부 시기 후계자 문제를 두고 발생한 오닌의 난(1467~1477) 이후 센고쿠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 ㄷ.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감합 무역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ㄷ.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단행하였습니다.
- ㄹ. 에도 막부는 산킨코타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9.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1024년, 술탄 마흐무드는 **인도**의 여러 요새와 도시를 함락시켰다. …(중략)… **술탄** 마흐무드가 승리를 거두고 인도의 우상을 파괴했을 때, 인도인들은 **숨나트(신)**이 그 우상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만약 그가 그 우상들에 만족했다면 어느 누구도 부수거나 다치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1024년', **술탄**, **인도** 등을 통해 다음 상황과 관련된 왕조는 **가즈니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술탄**

: 술탄은 칼리프로부터 지배 지역의 정치와 군사적 실권을 위임 받은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실권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술탄'과 관련된 왕조는 이슬람 왕조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인도**

: 밑줄 친 '술탄'이 인도의 여러 요새와 도시를 함락시켰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술탄'은 인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술탄'과 관련된 왕조는 인도 지역을 차지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인도 지역을 차지한 이슬람 왕조는 가즈니 왕조, 고르 왕조, 델리 술탄 왕조 시대의 이슬람 왕조, 무굴 제국 등이 있으니,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3 | **1024년**

: 밑줄 친 '술탄'이 활동한 시기가 1024년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술탄'과 관련된 왕조는 10세기 후반부터 12세기 후반까지 존속한 가즈니 왕조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가즈니 왕조**는 10세기 후반 **아프가니스탄**에서 건국되었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굽타 왕조**에서는 힌두교가 발전하였습니다.
- ② **굽타 왕조**는 에프탈의 침입으로 쇠퇴하였습니다.
- ④ **무굴 제국**은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의 세력 확장으로 쇠퇴하였습니다.
- ⑤ **무굴 제국**에서는 페르시아 세밀화와 인도 양식이 조화한 무굴 회화가 발전하였습니다.

★ 가즈니 왕조 VS 구르(고르) 왕조 ★

	가즈니 왕조	구르(고르) 왕조
시기	10세기 말~12세기 말	12세기 말~13세기 초
기반	아프가니스탄(가즈니 지방, 구르(고르) 지방)	
세력	편자브 지역(서북인도)	북인도 대부분+델리

사회탐구 영역

10.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솔로몬이여, 내 그대를 이겼노라!” 성당 앞에서 황제는 크게 외쳤다. 황제의 말마다나 성당은 **비잔티움의 전성기**에 걸맞은 **웅장함** **돔과 찬란한 모자이크 벽화**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황제가 것처럼 자랑스러워 한 **성당이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 모스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비잔티움의 전성기’, ‘웅장함 돔과 찬란한 모자이크 벽화’, ‘성당이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 모스크가 될 거라고’ 등을 통해 밑줄 친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비잔티움의 전성기**

: 자료의 성당이 비잔티움의 전성기에 지어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의 성당을 지은 밑줄 친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들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웅장함 돔과 휘황찬란한 모자이크 벽화**

: 웅장한 돔과 휘황찬란한 모자이크 벽화는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그’는 비잔티움 양식의 성당을 건축한 인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비잔티움 양식의 성당을 건축한 인물로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외에는 다뤄지지 않지만,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3 | **성당이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 모스크가 될 거라고**

: 밑줄 친 ‘그’가 지은 비잔티움 양식의 성당이, 이후에 모스크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성 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후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이 때문에 성당임에도 미나렛(첨탑)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근거 2와 근거 3을 이용한 추론은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세부 정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뤄지지 않는 정보를 이용한 추론이기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반달 왕국을 정복하고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프랑크 왕국의 피핀은 롬바르디아족(랑고바르드족)을 몰아낸 후 얻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황령의 시초입니다.
- ② 프랑크 왕국의 궁재인 카롤루스 마르텔은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슬람 세력의 서유럽 진출을 막았습니다.
- ③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는 아헨에 궁정 학교를 세우는 등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꽃피웠습니다.
- ⑤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하였습니다.(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습니다. 국교화와 공인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국교화 VS 공인 ★

국교화(테오도시우스)	공인(콘스탄티누스)
딴 건 믿지 마!	이거도 믿어봐~

11. ①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가) 웨스트민스터(영국 의회)에 모인 성직자와 귀족, 평민들은 국왕 전하에 **신민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1조 전하의 신민들은 의회에서 동의되지 않은 그 어떠한 세금, 공납, 헌금 또는 다른 유사한 부담금을 내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3조 자유인은 그 지방의 법 또는 영주의 합법적인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나)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성직자와 귀족, 평민들은 **제임스 2세**의 만행, 종교와 법과 자유가 전복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4.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9. **의회 안에서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신민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청원’ 등을 통해 (가) 문서는 **권리 청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 청원은 **162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근거 | **신민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청원**

: 영국 의회에서 영국 국왕에게 청원을 제출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문서는 권리 청원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2세’, ‘의회 안에서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등을 통해 (나) 문서는 **권리 장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 장전은 **168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근거 1 | **제임스 2세**

: (나) 문서가 제임스 2세의 만행을 막기 위해 선언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문서는 제임스 2세 폐위 후 작성된 권리 장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근거 2 | **의회 안에서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 의원 면책권과 관련된 서술입니다. 의원 면책권과 관련된 서술은 권리 청원과 구별되는 권리 장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문서는 권리 장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명은 1644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에도 막부는 1603년에 수립되었습니다.
- ③ 플라시 전투는 1757년이 발발하였습니다.
- ④ 로크는 1690년, 명예혁명 이후 명예혁명을 옹호하는 의견이 담긴 『시민 정부론』을 저술하였습니다.
- ⑤ 오스만 제국은 술레이만 1세 재위 시기(16세기 중엽, 1538년)에 유럽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였습니다.(프레베자 해전)

★ 권리 청원 VS 권리 장전 ★		
	권리 청원	권리 장전
시기	1628년	1689년
수령인	찰스 1세	메리 2세&윌리엄
내용	의회의 입법권, 과세권 등	
	왕권 제한 중심	의원 면책권 추가

12. ④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외국의 선박이 황푸에 닿을 내렸을 때 수로 안내인은 황포에 있는 세관을 통해 **해관** 감독에게 선박이 도착했음을 보고했다. 보고할 때는 선박 명칭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선장 이름으로 그 선박을 불렀다. 그러면 두 척의 중국 배가 재빨리 그 선박으로 다가가 밀수품이 없는지 확인했다. 두 척은 선미 양쪽에 정박하였다. 그러는 동안 대리인은 선박의 보증인이 될 **공행**의 행상과 해관 감독과 사무를 처리하며, 선박에 실린 화물을 광저우로 보내고 선박이 신고 갈 화물을 황푸로 보내기 위한 통역관을 구했다. 이것 모두는 대리인이 관리해야 할 공인된 임무들이었다.

해관, **공행**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왕조는 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해관**

: 해관은 당 대부터 시박사가 맡아 오던 해상 무역 관련 사무를 이어받은 청 대의 관청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왕조는 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관이라는 정보는 EBS 연계교재의 날개 자료(시박사 관련)에만 나오는 상당히 지엽적인 정보이므로, 다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시박사는 당 대에 설치되었고, 송, 원, 명 대까지 존속하였습니다.)

근거 2 | **공행**

: 공행은 청 대에 서양 상인과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광저우의 상인 조합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왕조는 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청 대에는 학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고증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는 명 말에 활동하였습니다.
- ② 원 대의 곽수경 등이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수시력을 제작하였습니다.
- ③ 원 대에는 서상기, 비파기 등의 원곡이 유행하였습니다.
- ⑤ 명 말의 재상인 장거정은 일조편법을 시행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13.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가) : 독일이 착안해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인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철과 피, 곧 병기와 병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 **부황(父皇)께서 제국을 건국한 이래 43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우리들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중략)… 우리는 지난 나흘 간 **러시아,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하였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점령**하였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A] : 우리의 국익을 위해 **유럽 전체의 현상은 유지**하되, **프랑스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철과 피, 곧 병기와 병력’ 등을 통해 (가) 인물은 **비스마르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철과 피, 곧 병기와 병력**

: (가) 인물이 ‘철과 피(철혈)’ 즉 병기와 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철혈 정책을 주장하며 군비를 증강한 비스마르크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부황(父皇)께서 제국을 건국한 이래 43년 동안, **러시아,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점령’** 등을 통해 (나) 인물은 **빌헬름 2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부황(父皇)께서 제국을 건국한 이래 43년 동안**

: ‘황제’인 아버지가 제국을 건국한 지 43년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어떤 제국의 황제이며 (나) 인물이 다스리는 제국이 건국된 지 43년이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 인물이 다스리는 제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근거 2 | 러시아,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점령

: (나) 인물이 다스리는 제국이 러시아,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하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점령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이 다스리는 제국은 독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전쟁 초기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의 발화 시점이 1914년 또는 1939년임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독일 제국)과 제2차 세계대전(나치 독일) 모두 러시아,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하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때 (나) 인물이 황제라는 점, (나) 인물이 다스리는 제국이 건국된 지 43년이 되었다는 점(1871년→1914년), 전쟁 초반 러시아에 선전포고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이 다스리는 제국은 독일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빌헬름 2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유럽 전체의 현상은 유지', '프랑스를 국제적으로 고립' 등을 통해 주장 [A]는 비스마르크의 현상 유지 정책과 관련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헬름 2세는 대외 팽창 정책을 주장하며 비스마르크와 대립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장 [A]에 대해 (가) 인물인 비스마르크는 동의, (나) 인물인 빌헬름 2세는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4. ②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쿠다간즈에서 적을 맞닥뜨렸지. 적들은 그들을 완전히 에워쌌지, (적들인) 백인 병사들은 잘 싸우더군.
 용병들은 소수였고, 결코 돌아오지 못했지. 적은 그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백인 병사들은 잘 싸우더군.
 ... (중략) ... 적들의 대포알은 놀랍기도 하지. 용병들은 갠지스 강을 건너는 것밖에 도망칠 길이 없네.

'(적들인) 백인 병사', '용병', '갠지스 강' 등을 통해 밑줄 친 '적들'은 영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적들인) 백인 병사

: 밑줄 친 '적들'이 백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적들'은 유럽 국가 중 하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 중 하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용병, 갠지스 강

: 밑줄 친 '적들'이 '용병'과 대치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 용병들과 관련된 장소로 '갠지스 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용병들은 갠지스 강이 있는 인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의 용병은 세포이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밑줄 친 '적들'은 영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영국은 청을 공격하여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킨 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 이후 영국은 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여 홍콩을 할양받았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쿠바를 보호국화하였습니다.
- ③ 포르투갈은 모잠비크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 ④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합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습니다
- ⑤ 독일은 영국의 3C 정책에 대항하여 3B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3C 정책은 카이로(Cairo)-케이프타운(Cape Town)-콜카타(Calcutta)를 잇는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이었고, 3C 정책은 베를린(Berlin)-비잔티움(Byzantium)-바그다드(Baghdad)를 잇는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15. ⑤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사파비 왕조는 맘루크 왕조와 연합하여 종파적으로 대립하던 (가)을/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갈등이 지속되자 사파비 왕조와 (가)의 군대가 메소포타미아의 찰드란에서 격돌하였다. 그러나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까지 부상을 입으며 패주하였다. 찰드란에서 사파비 왕조를 가볍게 제압한 (가)은/는 사파비 왕조와 연합하였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유럽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파비 왕조', '종파적으로 대립',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다' 등을 통해 (가) 제국은 오스만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사파비 왕조, 종파적으로 대립

: (가) 제국이 사파비 왕조와 종파적으로 대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파비 왕조가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제국은 수니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수니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는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 등이 있으므로,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유럽으로 나아가게 된다.

: (가) 제국이 사파비 왕조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맘루크 왕조를 정복한 후 유럽으로 진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에게 정복되었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만 1세는 동유럽으로 진출하여 헝가리를 정복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제국은 오스만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오스만 제국은 티무르 왕조와 벌인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오답인 이유 |

- ① **티무르 왕조**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 ②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는 지즈야를 폐지하였습니다. 폐지된 지즈야는 아크바르 황제 사후 아우랑제브 황제가 부활시켰습니다.
- ③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하였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서유럽 진출은 카롤루스 마르텔에 의해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패배하며 좌절되었습니다.
- ④ **몽골 제국**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 수니파 국가 VS 시아파 국가 ★	
수니파	시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마이야 왕조 후우마이야 왕조 가즈니 왕조 셀주크 튀르크 구르(고르) 왕조 티무르 왕조 오스만 제국 맘루크 왕조 무굴 제국 와하브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부와이 왕조 사파비 왕조 카자르 왕조 이란

*부와이 왕조 : 페르시아 지역에서 성장, 아바스 왕조 내정간섭
→셀주크 튀르크의 바그다드 입성으로 축출·멸망

16.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가) :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또한 그 태도를 때에 따라 행사도 하고 중지도 할 줄 알아야 한다. ... (중략) ... 요컨대 **군주는 앞서 말한 여러 좋은 기질(인자함, 신의, 신앙심 등)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다.**

(나) :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시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하셨다. ... (중략) ... 이 모든 것이 은밀하고 알 수 없는 신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정당하고도 공평하다.

'군주는 선하기만 해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군주는 앞서 말한 여러 좋은 기질(인자함, 신의, 신앙심 등)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다.' 등을 통해 (가) 인물은 **마키아벨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군주는 선하기만 해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군주는 앞서 말한 여러 좋은 기질(인자함, 신의, 신앙심 등)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다.**

: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관련된 서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과 도덕을 분리하였고, 권력을 얻는 것의 문제와 선악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인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16세기 이후 지중해 무역의 쇠퇴 등으로 변화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시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 등을 통해 (나) 인물은 **칼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시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

: 칼뱅이 주장한 예정설과 관련된 서술입니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며 오직 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예정설을 주장하며 종교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정답인 이유 |

- ③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대의 신흥 상공업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마키아벨리는 **16세기(생몰년:1469~1527)**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14세기~15세기(1337~1453)에 걸쳐 전개된 백년전쟁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②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을 저술하였습니다.
- ④ 예수회는 **구교(로마 가톨릭)**가 종교 개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수도회입니다. 따라서 종교 개혁가인 칼뱅은 예수회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칼뱅은 스위스,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알프스 이북에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 ⑤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 천재교육교과서 자료연계 ※

'(집권 7년째인) 1984년 나는 광저우에 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제특구는 초보 단계였습니다. 이번에 와 보니 선전과 주하이 경제특구, 그리고 기타 몇몇 지방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이 빠릅니다. ... (중략) ... 자본주의는 이미 수백 년의 발전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약 건국한 시점부터 100년의 시간을 들여 우리가 발달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집권 7년째인) 1984년 '광저우', '선전', '주하이', '경제특구' 등을 통해 밀줄 친 '나'는 덩샤오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집권 7년째인) 1984년, 광저우, 선전, 주하이**

: 밀줄 친 '나'가 1984년에 집권한 지 7년째에 접어들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 선전, 주하이 등을 통해 밀줄 친 '나'가 중국의 인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나'는 1978년에 집권한 덩샤오핑임을 추

사회탐구 영역

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덩샤오핑이 1978년에 집권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가정하고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경제특구**

: 밑줄 친 '나'와 관련된 정책으로 경제특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나'는 동남 해안 지역(선전, 주하이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덩샤오핑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덩샤오핑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정치 민주화를 요구한 톈안먼 사건을 강경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장제스는 베이징을 점령하여 북벌을 완수하였습니다.
- ②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③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단행하였습니다.
- ④ 쑨원은 제1차 국공 합작을 추진하였습니다.

18. ④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베트남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해군 부대는 국제 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제 해역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해군 함정을 고의적·반복적으로 공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국제 사회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다. ... (중략) ... 미합중국 상원과 하원은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무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하는 바이다.**

'베트남', '미국 해군 함정을 고의적·반복적으로 공격', '미군에 대한 무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승인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등을 통해 다음 문서가 발표된 시기는 **1964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만으로는 1964년임을 특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1964년~1965년경으로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1 | **베트남, 미국 해군 함정을 고의적·반복적으로 공격**

: 베트남이 미국 해군 함정을 공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문서는 북베트남 해군이 미국 해군 함정을 공격하며 양국이 교전한 통킹만 사건 이후에 발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2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문서는 1964년 8월 2일 이후 발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미군에 대한 무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하는 바이다.**

: 베트남의 공격에 대응하여 미국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문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전후하여 발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64년 8월 5일 처음으로 베트남에 파병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문서는 1964년 8월 5일을 전후하여 발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미국과 소련은 1972년에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를 체결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1955년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가 결성되었습니다.
- ② 1955년에 반동 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반동 회의에서는 평화 10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 ③ 1948년~1949년에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였습니다.
- ⑤ 1962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9. ①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와하브 운동은 아랍 지역에서 전개된, 이슬람 종교 개혁 운동이다. 이슬람 신학자인 무함마드 빈 압둘와하브가 이슬람교의 타락과 형식주의를 비판하며 '쿠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일종의 복고주의적, 순화주의적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작된 와하브 운동은 18세기 중엽 압둘와하브가 사우드 가문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와 동맹전선을 결성하며, 디리아 지역에 (가)을/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은/는 오스만 제국의 쇠락을 틈타 아라비아 반도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메카와 메디나를 장악하기도 했다. (가)은/는 오래지 않아 멸망했지만, (가)의 정신은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어진다.

'와하브 운동' 등을 통해 (가) 왕국은 **와하브 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와하브 운동**

: 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와하브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무함마드 빈 압둘와하브와 사우드 가문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연합하여 와하브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와하브 왕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이란에서는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 ③ 남아프리카의 줄루 왕국은 이산들로나 전투에서 승리하여 영국을 몰아냈습니다.
- ④ 인도의 인도 국민 회의에서는 콜카타에서 콜카타 회의를 개최하여 4대 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 ⑤ 이집트의 아라비 파샤는 반영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19번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로 책정된 데에 의아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번 문제의 자료는 '와하브 운동으로 와하브 왕국이 성립되었다.'라는 사실을 풀어 쓴 후 와하브 왕국을 (가) 왕국으로 둔 것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절대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료가 어렵게 느껴진 것은 **소재의 생소함**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와하브 운동은 EBS 연계교재나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서술되는 소재,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루지지 않는 소재, 즉 학생들이 생소해할 소재입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EBS 연계교재에서 와하브 운동과 비슷한 서술 분량을 갖는 카자르 왕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능특강 날개 자료에 소개된 리디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즉, 지엽적인 소재라고 출제가 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19번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소재라도, 문제화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세계사 점수가 상향평준화된 현 시점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생소하다고 느끼는 소재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기출 문제※ - 지엽적 소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번
(카자르 왕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리디아-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번
(카르타고-반달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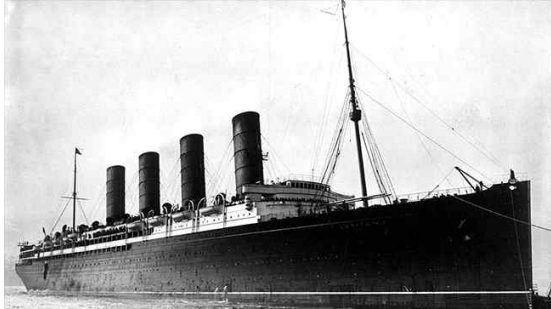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포르투갈의 식민지)

20. ②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속보] 루시타니아 호 격침...범인은 U보트



현지시각 5월 7일, 대서양을 향해하던 루시타니아 호가 독일 U보트의 어뢰 공격에 격침되었다. 침몰한 루시타니아 호에는 128명의 미국인 승객이 탑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독일에 선전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개전 후 1년여 간** 먼로 독트린에 입각해 중립을 고수하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U보트', '독일에 선전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 '개전 후 1년여 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등을 통해 밑줄 친 '격침'은 **1915년**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U보트**

: U보트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활용된 잠수함입니다. 이 점을 알았다면 밑줄 친 '격침'이 제1차 세계 대전 중 있었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었겠지만, 이 점을 몰랐다고 가정하여 다른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독일에 선전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

: 미국의 전 대통령이 독일에 선전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격침'은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하기 전에 있었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격침'이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1917년 4월 이전(나아가 자료에서 현지시각 5월 7일이라고 하였으므로, 1916년 이전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1941년 12월 이전의 일일 것입니다. 근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3 | **개전 후 1년여 간**

: 미국이 개전 후 1년여 간 중립을 고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격침'은 전쟁 개전 1년 후에 있었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191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면 1940년일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4 | **우드로 윌슨 대통령**

: 밑줄 친 '격침'이 일어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격침'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정확히는 1915년에 있었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자료의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다른 인물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부터 1945년 4월에 사망할 때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 시기에 '전' 대통령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료의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초점을 두어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이라 추론했다면, **하나의 근거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할 것입니다.

정답인 이유 |

- ㄱ. 러시아 3월(러시아력 2월) 혁명은 1917년 3월에 전개되었습니다.
- ㄴ. 킬 군항 수병들은 1918년 10월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은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하고, 독일에 임시 정부가 수립된 후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답인 이유 |

- ㄷ.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1914년에 벨기에를 침공한 후 프랑스로 진격하였습니다.
- ㄹ. 오스만 제국의 청년 튀르크당은 1908년에 무장 봉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20번 문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문제를 차용하여 만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탐구 영역

★ 출제자의 REVIEW ★

- ※ 짧은 기간동안 세계사 문제를 출제해 오며, 저의 출제 기조는 '문제 풀이의 핵심은 자료 해석이다!'이었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이러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대비 EASY 모의고사는 1회부터 자료 해석의 난이도를 극상으로 올린 문제들만 실어 두었습니다.
- ※ 이번 세트를 풀다 보면, 뽕밭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느 문제 하나 쉽게 넘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수능장에서 만났다면, 평가원 욱부터 박고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저는 욱하져 말아주세요...)
- ※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 하다 보니, 연표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5문제, 4번/7번/11번/18번/20번) 대부분의 연표 강좌가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이런 문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 ※ 6월/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지 않은 시점이라, 소재의 중요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념 학습이 이뤄지는 시점이기에, 개념의 빈 구멍을 찾기에는 안성맞춤인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구멍을 메우신 후 연표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9번/19번 문제는 평가원 모의고사/EBS 연계교재/사설 모의고사 및 N제 등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소재를 이용한 문제이니 잘 곱씹어 주세요.
- ※ 해설지를 보시다 보면, 제가 '출제자의 COMMENT'를 달아둔 것이 보일 것입니다. EASY 모의고사 해설지 제작에 있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문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첨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과장 좀 보태면, EASY 모의고사 해설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 수험생활 중의 노하우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대부분 보지 않으시겠지만, 이 글을 보셨다면 저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선 한 번 하는 셈치고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 ※ 2번 문제는 제가 '출제자의 COMMENT'로 따로 달아두기도 했지만, 현 시점에 세계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사만, 일본사만, 서아시아사만, 인도사만, 서양사만 공부해서는 더 이상 현 시점의 세계사 과목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고난도 자료 분석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료 분석을 연습하기에는 완벽한 도구일 것입니다.
- ※ 7번 문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연표를 사용한 것 같은 아쉬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를 '지엽적인 연도까지 완벽히 외워야지.'가 아니라 '개념을 더 완벽하게 학습해야지.'에 찍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쉬움을 무릎쓰고 만든 이유가 그것이니깐요.

- ※ 13번 문제는 작년 9월 모의평가부터 등장한 '(가), (나) 국가 간 관계 유형' 문제를 변형한 자작 신유형 문제입니다. 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의견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 파악과 더불어 그 인물의 주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꽤 심도 있는 문제이니 이러한 유형을 평가원에서 출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써먹어 주셨으면 합니다.
- ※ 16번 문제도 13번 문제와 비슷하게, 인물에 대한 정보 파악과 그 인물의 주장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랬듯, 타 소재에 비해 난이도 있게 출제되지 않는 르네상스 파트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고난도 문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세요.
- ※ 어려운 문제들을 해치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EASY 모의고사를 기대해 주세요:D

당신의 수능이 EASY해지는 그날까지,
EASY한 독도바다가 함께하겠습니다.